TONGILGROUP

News Letter

Subject: **20120809 - "Freedom Society" tour of U.S. cities (1)**
Date: 12-08-09

During the Hoon Dok Hae session on July 11, Shin Pyeon Nim woke up early in the morning and brought much joy to True Parents. However, finally he slept in True Mother's arms.

International President Hyung Jin Moon's Twitter ▶ lovintp

July 29, Hoon Dok Hae: With the principle of indemnity, we should resolve all the suffering that God experienced with grief throughout history. We should recognize that we made a mistake, became undutiful children and caused God suffering. After that, we can become the true filial children who can attend God. Aju!

July 31, Hoon Dok Hae: Truth is eternal and unchanging. How can we find the truth? We should go to low places without a self-centered mind. In the Bible, whoever wants to become great among you must be your servant. Likewise, the essence of human beings is spiritual. Aju!

August 1, Hoon Dok Hae: Even though human beings make a wonderful plan, when he or she did not stand in the subject position of

that plan, he or she pursue a new purpose. The critical point of purpose cannot be beyond love. Aju.

Dr. Kook Jin Moon "Freedom Society" tour of eight major U.S. cities

According to True Parents' direction, from last year Dr. Kook Jin Moon has been giving a lecture about the importance of national security titled 'Strong Korea' over 100 times. He started his 8 church speaking tour in the USA from Los Angeles on July 25, 2012.

* Tour Schedule: July 25 in Los Angeles, July 26 in San Francisco, July 27 in Seattle, July 29 in Chicago, July 30 in Dallas, July 31 in Atlanta, August 1 in Washington DC, August 3 in New York

* Speaking tour in Los Angeles, the first venue

Video report:
http://www.tongilgroup.org/system_eng/bbs/board.php?bo_table=movie&wr_id=53

Dr. Kook Jin Moon giving a lecture titled 'Freedom Society'

*** Speaking Tour in San Francisco, the second venue**

Video report:

http://www.tongilgroup.org/system_eng/bbs/board.php?bo_table=movie&wr_id=54

Dr. Moon giving a lecture titled ‘Freedom Society’

* Speaking tour in Seattle, the third venue

Video report:
http://www.tongilgroup.org/system_eng/bbs/board.php?bo_table=movie&wr_id=55

*** Speaking tour in Chicago, the fourth venue**

Video report:

http://www.tongilgroup.org/system_eng/bbs/board.php?bo_table=movie&wr_id=56

*** Speaking tour in Dallas, the fifth venue**

Video report:

http://www.tongilgroup.org/system_eng/bbs/board.php?bo_table=movie&wr_id=57

*** Speaking tour in Atlanta, the sixth venue**

Video report:

http://www.tongilgroup.org/system_eng/bbs/board.php?bo_table=movie&wr_id=58

Media Coverage

*** Segye Times: Traditional Drama Ballet, a touching impression (July 6) – Universal Ballet**

영국 버밍엄 로열발레단의 '로미오와 줄리엣' 공연 장면. 셰익스피어 원전에 가장 충실한 버전으로 평가받으며, 케네스 맥밀란을 세계적인 안무가 반열에 오르게 한 작품이다. 버밍엄 로열발레단 제공

정통 드라마 발레

케네스 맥밀란의 '로미오와 줄리엣'

가슴 뭉클한 감동

드라마발레의 거장 케네스 맥밀란의 '로미오와 줄리엣'이 오랜만에 국내 무대에서 공연된다. 1983년 영국 버밍엄 로열발레단의 내한 공연 이후 30년 만이다. 7일부터 14일까지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에서 마련되는 '로미오와 줄리엣'은 한국 발레단으로서는 처음으로 유니버설발레단이 공연권을 얻어 케네스 맥밀란의 드라마를 재현한다.

유니버설발레단 초연… 내일부터 예술의전당

83년 英 로열발레단 내한 공연 후 30년 만에

셰익스피어 3대 비극 중 하나로서 영원한 사랑의 성서로 추앙받는 '로미오와 줄리엣'은 수많은 예술가에게 창작의 영감을 불러일으킨 희곡. 그중 작곡가 세르게이 프로코피예프는 특유의 현대성과 조화된 격정적이면서도 드라마틱한 발레 음악을 작곡했다. 이후 두 거장들로부터 영감을 받은 수많은 안무자들이 발레 '로미오와 줄리엣'의 다양한 버전을 탄생시켰다.

특히, 케네스 맥밀란의 '로미오와 줄리엣'은 셰익스피어 원전에 가장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그를 세계적 안무가의 반열에 오르게 했다. 이 버전은 프로코피예프의 음악이 주는 가슴 뭉클한 감동에 인물들의 내면 심리까지 더해 드라마틱하게 풀어놓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케네스 맥밀란의 '로미오와 줄리엣'은 유독 한국과 인연이 작었다. 드라마 발레의 양대 산맥인 존 크랑코 버전이 1994년과 2008년에 슈투트가르트 발레단의 내한 공연을 통해 두 차례에 국내에 소개된 반면, 맥밀란 버전은 1983년에 한·영 수교 100주년 기념으로 국내에 소개된 이후 지금까지 다시 공연된 적이 없다. 때문에 케네스 맥밀란의 작품을 오랫동안 기다려 왔거나, 정통 드라마 발레 본연의 감동을 느끼고 싶은 관객이라면 꼭 봐야 할 작품이라는 평가다.

가장 유명한 장면인 '발코니 파드되(발레에서 두 사람이 추는 춤)'는 어느 버전이나 아름답지만, 맥밀란 버전은 남녀간 사랑의 애욕을 더욱 현실적으로 표현하여 강한 비극성을 암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세월이 지나도 영국 버밍엄 로열발레단, 아메리칸 발레시어터, 라 스칼라 발레, 호주발레단, 스웨덴 왕립발레단에서 공연되며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다. 특히 이번 공연에는 무대 디자이너 폴 앤드루스가 새롭게 디자인한 영국 버밍엄 로열발레단의 무대장치와 의상을 공수해 온다.

문훈숙 유니버설발레단 단장은 "케네스 맥밀란은 21세기 세계 발레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안무가이기에 그의 '로미오와 줄리엣'은 한국 관객이 꼭 만나야 할 작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발레리나 시절 춤추고 싶었던 작품이었기에 후배들의 춤을 통해 맥밀란 작품의 감동을 공유하고 싶은 바람이 있다"고 덧붙였다.

줄리엣과 로미오 역으로 안지은-로버트 튜슬리, 김나은-콘스탄틴 노보셀로프, 그리고 8월 21일 결혼을 앞둔 예비 커플 황혜민-엄재용 등이 무대에 오른다. 박태해 기자

pth1228@segye.com

*** Korea Economic Daily: Juliet and Romeo – unconventional ballet (July 4) – Universal Ballet**

망가진 줄리엣·광기의 로미오… 파격 발레

'안무 전설' 케네스 맥밀런 '로미오와…' 7일 서울 무대

무대예술에서 익숙함은 때로 독이 된다. 셰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이라면 더 그렇다. 로미오와 줄리엣은 영화와 드라마 소재로 수없이 재탄생했고, 발레만 해도 100개 이상의 버전이 있다. 이야기의 흐름은 물론 비극적인 결말도 흰하다.

그런데도 1965년 초연 이후 지금까지 총 420여회, 해마다 10회꼴로 공연됐으며 그때마다 구름 관객을 몰고 다녔던 발레 '로미오와 줄리엣'이 있다. '어둠과 춤추는 남자'로 불렸던 영국 로열발레단의 전설적 안무가 케네스 맥밀런(1929~1992) 버전이다.

맥밀런 버전의 '로미오와 줄리엣'이 30년 만에 한국 무대에 오른다. 유니버설발레단은 오는 7~14일 서울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무대에서 이 작품을 8회 공연한다. 영국 로열발레단, 미국 아메리칸발레시어터, 스웨덴 왕립발레단, 라 스칼라 발레, 호주 발레단 등 최고의 발레단만 공연한다는 이 작품의 한국 공연은 1983년 영국 로열발레단이 세종문화회관에서 한국 초연한 후 처음이다.

케네스 맥밀런의 '로미오와 줄리엣'을 버밍엄 로열발레단이 열연하고 있다. 톰쿡

"죽어 있는 줄리엣을 본 로미오는 반미치광이가 돼 마치 거대한 고깃덩이를 옮기듯 무대 위를 질질 끌고 다녀야 했다. 널브러진 발레리나의 몸을 억지로 예쁘게 만들 필요도 없었고 다리를 가지런히 모으지 않아도 됐다. 무용수이기 전에 한 인간으로서 날것의 감정에 충실하는 게 먼저였다."

맥밀런 버전의 로미오와 줄리엣을 연기한 무용수들은 이렇게 입을 모은다. 맥밀런은 발레리나가 깃털처럼 가볍게, 공주처럼 화려하고 아름답게 춤춰야 한다는 상식을 깼다. 이 드라마 발레를 위해 무용수들은 테크닉뿐만 아니라 감정 연기에 많은 공을 들인다. 어깨의 작은 떨림, 멍하게 서 있는 여백까지 치밀하게 계산해야 한다.

아름다움과 처절함의 극한을 보여주는 '발코니 파드되(발코니 2인무)'는 이 작품의 백미다. 잠을 이루지 못한 줄리엣이 발코니로 나오면 로미오가 정원에 등장해, 서로의 사랑을 뜨겁게 고백하는 장면이다. 로미오가 줄리엣을 들어올리는 리프팅 동작이 관능적이면서 힘이 넘친다. 극의 후반부 줄리엣이 죽은 줄 알고 오열하는 로미오의 분노와 박탈감, 청순하지만 반항적인 숙녀로 비극을 부채질하는 줄리엣의 감정선과 몸동작은 한순간도 놓칠 수 없다. 세르게이 프로코피예프의 웅장하고 섬세한 음악도 감동을 더한다.

"동화 속 이야기는 진절머리가 난다"던 발레계의 아웃사이더 맥밀런은 내놓는 작품마다 논쟁거리를 만들었다. 삶의 진실을 이야기하려는 그의 안무는 왕자와 공주의 해피엔딩을 그리는 클래식 발레에 비해 다소 어둡고, 그로테스크했다. 그의 안무 스타일은 어두웠던 어린 시절과도 맞닿아 있다. 누구나 겪을 법한 보편적인 장면으로 고전을 풀어낸 그의 작품은 수십년이 지난 지금까지 로열발레단이 자부하는 위대한 유산으로 남아 있다.

맥밀런의 작품은 무용수에 따라 완전히 다른 작품으로 읽히기도 한다. 이번 무대에는 안지은 유니버설발레단 수석무용수와 세계적인 발레리노 로버트 튜슬리가 캐스팅됐다. 10년간 연인 사이로 지내다 다음달 사랑의 결실을 맺는 발레단의 간판스타 황혜민 엄재용, 시니어 솔리스트 김나은과 수석무용수 콘스탄틴 노보셀로프도 호흡을 맞춘다. 발레단의 꽃미남 수석무용수 이승현은 황혜민과 12일 공연에 나선다. 1만~10만원. (02)580-1300

김보라기자 destinybr@hankyung.com

*** The Financial News: ‘Romeo and Juliet’ being drastic and really passionate just like play (July 5) – Universal Ballet**

금주의 문화人

유니버설발레단 ‘로미오와 줄리엣’ 로버트 튜슬리 & 안지은

“연극처럼 과감하고 리얼 격정적인 로미오와 줄리엣”

심리묘사 탁월 ‘케네스 맥밀란 버전’ 관록의 연기파 무용수 튜슬리 “무대선 부끄러움 없이 실제처럼”

오프닝 주역 따낸 안지은 맥밀란재단 연출가 “최고의 연기” 찬사 7일부터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막 리허설을 끝낸 두 무용수는 기쁜 숨을 고르고 있었다.

“스케일이 큰 작품이에요. 웬만한 발레단은 소화가 쉽지 않습니다.”(로버트 튜슬리)

“최고의 연기를 보여주지 않으면 욕먹을 게 같아요. 그래서 끝에서도 춤을 춥니다.”(안지은)

서울 종친구 능동 유니버설발레단(UBC) 연습실에서 만난 무용수 로버트 튜슬리와 안지은이 저우 호흡을 가다듬으며 말문을 열었다. 이들은 UBC가 7일부터 14일까지 서울 서초동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에서 공연하는 케네스 맥밀란 버전의 ‘로미오와 줄리엣’ 오프닝 무대 주역들이다. 두 사람은 공연 개막 첫날과 폐막일, 그리고 10일 세 차례 무대에 오른다.

영국 로열발레단 출신 케네스 맥밀란(1929~1992)은 독일 슈투트가르트발레단의 존 크랑코와 함께 세계 드라마 발레를 이끈 전설의 안무가다. 그의 ‘로미오와 줄리엣’은 인물의 내면 심리 묘사가 탁월하다. 1965년 당대 최고의 발레 커플 마고 폰테인과 루돌프 누레예프에 의해 세계 초연됐고, 국내에선 1983년 내한했던 영국 로열발레단에 의해 초연됐다. 국내 발레단이 이 작품을 올리는 건 이번 UBC 무대가 처음이다.

영국 출신의 발레리노 로버트 튜슬리는 관록의 연기파 무용수다. 캐나다 국립, 슈투트가르트, 로열, 뉴욕시티발레단 등에서 주역 무용수로 활약하며 기량을 과시했다. 국내에선 2002년 강수진의 파트너로 나온 ‘카멜리아 레이디’를 통해 유명세를 치렀다. 무대에서 내려온 튜슬리는 이지적인 눈빛에 단호한 어투였다. “무대에서 제일 중요한 건 부끄러워해선 안된다는 겁니다.” “무대 위에선 실제 살인 것처럼 그대로 반응해야 해요.” “남자 무용수는 여자 무용수가 전적으로 믿고 몸을 맡길 수 있도록 신뢰감을 줘야 합니다.”

“몸이 허락하는 한 무대에 설 것”이라는 그의 나이는 올해 마흔둘이다. 그가 현재 프리랜서 무용수로 있는 건 “몸 컨디션에 맞춰 공연을 고를 수 있기 때문”이다. 예술행정 석사인 그는 “극장장도 할 수 있고, 발레단 예술감독도 가능하다”며 남은 공을 넌지시 얼러졌다. 무대를 완전히 떠나도 따로 할 일이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프랑스 프로방스 시골마을에 집이 있어요. 닭 100마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 생활이 축복이에요. 여생을 자연 속에서 보내고도 싶습니다.” 함박웃음을 터뜨리는 튜슬리의 얼굴이 갑자기 빨그스레해졌다.

튜슬리와 호흡을 맞추고 있는 발레리나 안지은(36)은 이번 공연이 생애 잊을 수 없는 무대다. 선화예고, 이화여대를 나온 그는 국립발레단 수석무용수 출신 김주원과 고교동창이다. 한창 절정의 기량을 뽐내고 이제 슬고르기를 할 나이대에 그는 생애 첫 오프닝 주역을 따낸 것이다. 그것도 꺼탈스럽기로 유명한 맥밀란재단의 연출가 줄리 링컨으로부터 “연기가 최고”라는 극찬과 함께. “관둘까 생각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좀 아깝더라고요.” 발레리나 대부분이 예민한 성격의 소유자들이지만, 이 대기만성형 무용수 안지은은 그쪽 부류와 거리가 멀다. “욕심이 많지 않았어요. 나름대로 만족하고 살긴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행운을 잡게 됐네요. 너무 기쁩니다.” 담백한 소감이었다.

안지은은 맥밀란 버전의 ‘로미오와 줄리엣’은 연극성이 강한 발레라며 의욕을 보였다. “과감하고 리얼해요. 그동안 어떤 무대에서도 격석을 향해 돌을 보인 적이 없었는데 이 작품에선 그런 장면이 많습니다. 남자 무용수들의 칼싸움 장면은 정말 누군가 불려 죽을 것 같은 느낌을 줘요.” 안지은은 줄리엣에 푹 빠져 있었다. 눈을 뜨고 다시 감을 때까지 그는 줄리엣과 한몸이다. “비극적인 결말을 생각하다 보니 내내 웁니다. 프로코피예프 음악을 들으며 울고, 연습을 하다가도 울고요. 실제 공연에서도 평평 울면 어쩌나 걱정이에요. 그래도 이런 지금이 좋아요. 제 생애 최고의 순간입니다.” jins@fnnews.com 최진숙 기자

케네스 맥밀란 버전의 발레 ‘로미오와 줄리엣’을 연습 중인 유니버설발레단 수석무용수 안지은(오른쪽)과 로열발레단 출신 로버트 튜슬리.

새로나온 책

다니고 싶은 회사 만들기

존 베케트 / CR연역연구소 옮김 / 홍성사

아버지의 사망 후 슬픔을 추스르기도 전에 사장 자리에 올라 회사의 존폐를 결정해야 했던 저자의 일화로 이야기는 시작된다.

그 후 공장 화재 후 기적적인 재기, 달리면 지향 뜻화석에서 팔아이가 튕겨져 나갔지만 상처 하나 없이 무사했던 사건 등 드라마틱한 인생이 펼쳐진다.

자녀 입양은 1000달러 출산후 3년은 재택근무 베케트社의 ‘직원 존중’

저자의 회사 베케트사는 ‘직원 존중’을 경영원칙으로 삼고 있다. 아이를 입양한 직원에게는 1000달러를 지급하고, 출산한 직원에게는 26주까지 최고 50% 수준의 임금을 더 준다. 출산 후 3년까지는 시간제로 일하거나 재택근무도 가능하다. 직원들은 서로를 섬기는 대상으로 여긴다.

저자는 “성경은 경제, 교육, 과학, 예술 등 모든 분야에 말을 건네며 사업가의 직장인에게 통합적 세계관을 제시한다”고 말한다. 최진숙 기자

*** The Culture Times: as it is the feeling of the original, Romeo and Juliet of Macmillan’s choreography – Universal Ballet**

원작 느낌 그대로… 맥밀란 안무의 ‘로미오와 줄리엣’

유니버설발레단 7일부터 공연

‘로미오와 줄리엣’ 중 2인무. 비앙엄로열발레단 제공

세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은 영화, 드라마뿐 아니라 발레의 버전도 다양하다. 러시아 작곡가 프로코피예프의 발레 음악을 배경으로 발레단들은 안무자별로 조금씩 다른 특유의 무대를 펼쳐 왔다. 국립발레단이 수차례 선보인 ‘로미오와 줄리엣’은 현대 감각으로 설정된 몬테카를로발레단의 장 크리스토프 마이요의 버전이었다.

세계적 발레안무가 케네스 맥밀란이 영국 로열발레단을 위해 안무한 1965년 버전의 ‘로미오와 줄리엣’이 국내에 선보인다. 유니버설발레단은 7~14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에서 케네스 맥밀란 안무의 ‘로미오와 줄리엣’을 공연한다.

이 버전이 국내에 선보이는 것은 1983년 영국 로열발레단 내한공연 이후 30년 만이며, 국내 발레단으로는 처음 시도하는 무대다. 그동안 국내에선 존 크랑코 버전이 슈투트가르트발레단 내한무대를 통해 1994, 2008년 두 차례 선보였다.

유니버설발레단은 ‘케네스 맥밀란 안무의 ‘로미오와 줄리엣’은 세익스피어의 원전에 충실하며 등장인물의 성격과 내면 심리를 드라마틱하게 묘사한 심리드라마, 혹은 ‘대사가 없는 영화’ 같은 작품”이라고 설명한다. 맥밀란의 ‘로미오와 줄리엣’은 1965년 전설적인 발레 커플 마고 폰테인-루돌프 누레예프가 초연했다.

이 작품의 백미는 두 남녀가 처음 만나 사랑을 고백하는 발코니 장면, 죽음으로 사랑을 이루는 피날레의 2인무다. 군무로는 캐플릿가 무도회 장면, 두 집안의 남자들이 싸우는 론싱 장면이 절한다. 박자에 맞춰 춤추고 연기하려 할기보다 음악에 몰입해 자연스러운 감정을 드러낼 것을 강조한 안무가의 뜻을 따라 관객도 음악에 몸을 한껏 빠져볼 직하다. 무대와 의상은 1992년 영국 비앙엄로열발레단의 디자인을 공수해 온다.

이번 무대의 주역은 안지은-로버트 튜슬리(7, 10, 14일 낮 공연), 김나은-콘스탄틴 노브셀로프(8, 11, 13일) 및 발레단의 간판스타 황혜민은 다음 달 결혼하는 엄재용 및 수석무용수 이승현과 각기 14일 밤과 12일 호흡을 맞춘다. 음악은 콜 코넬리가 지휘하는 강남심포니오케스트라가 맡는다. 신세미 기자

TONGILGROUP